

예술 · 인문학 소양의 함양을 위한 첫걸음, 「아트 앤 스터디 인문학 강좌」

서울예술대학교
SEOUL INSTITUTE OF THE ARTS

사람을 배우는 학문, 인문학(人文學)
사람이 더욱 사람답게 사는 삶,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아트앤스터디 인문학 강좌

철학입문
모든 철학은 시를어도 이것만은 지속된다

서양철학
서양 철학의 뿌리부터 올라가자 탐구할 수 있는 강좌들

근현대철학
19,20세기 빛나는 철학을 융성하게 만든 강좌들

고객센터
02-323-1081
상담시간 월 ~ 금 09:30~18:30
휴무시간 12:30~13:30

동영상 문제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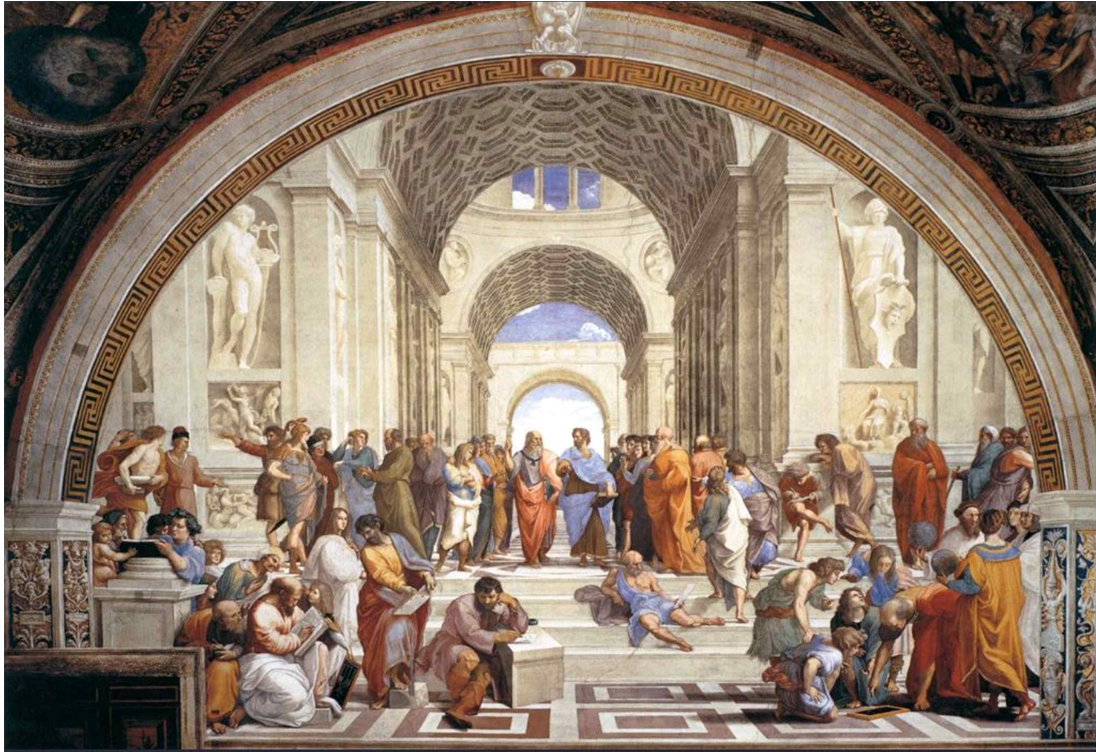
ArtoStudy.com
아트앤스터디에서
더 많은 인문학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e-러닝' 강좌로서 우리의 「아트 앤 스터디 인문학 강좌」의 대문을 장식하고 있는 중심 이미지에 대해 몇 자 적어 보기로 한다. 메인 화면 상단의 그림은 로마 바티칸의 스텐차 델라 세나투라(stanza della Segnatura)에 소장되어 있는 프레스코 기법의 벽화(579.5×823.5cm)로서, 르네상스 3대 거장 중의 한 사람인 라파엘로(Sanzio Raffaello, 1483~1520)가 26세 때 완성시킨 《아테네 학당》(Scuola di Athene)의 부분도이다.

원래 이 그림은 1점 소실점에 의한 원근법(선linear 원근법 또는 광학optical 원근법)의 구사로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된 좌우대칭의 안정된 시각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 베드로 성당과 비슷한 모습의 아카데미아(인류 최초의 학당으로 플라톤이 아카데미에 세운 학

교)에 54명의 철학자, 천문학자, 수학자들이 각기 자신의 분야를 대표하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라파엘로는 이렇게 자신의 그림에 과거 찬란했던 그리스 및 로마시대의 문화적 주역들인 인문학자들을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시대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르'(re-다시) '네상스'(naissance-탄생)를 화가인 자신도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도 — 사실, 오른쪽 하단의 두 번째 인물이 라파엘로 자신의 초상이다 —로 이 벽화그림을 제작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 중에도 주인공은 단연 중앙의 두 인물이다(「아트 앤 스테디」 메일 화면 중 오른쪽 부분에 해당함). 연속되는 아치 구도 속의 중앙에 화면 왼쪽에서 걸어 들어오는 인물은 하늘을 향해 검지 손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인물과 나란히 화면 오른쪽에서 땅을 향해 손바닥을 펼치며 누르는 자세로 들어오고 있는 인물이 우리의 시선을 잡는다. 이 중앙의 두 인물은 각각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서, 라파엘로는 이 각각의 인물들에게 그들의 대표적인 저서를 들게 했다. 즉 플라톤에게는 '우주생성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달린 『티마이오스』(*Timaeus*)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선과 행복을 주제로 하고 있는 두 권의 윤리학 저서 중 첫 번째 것인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ca Nicomachea*)을 말이다. 왜 그랬을까?

서양의 현대철학자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는 서양철학 전체를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Process and Reality*, 1929)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사

실, '지(sophia)를 사랑한다(philos)'는 철학(philosophia)의 역사는 플라톤 사상과 그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쌍두마차가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세의 신학에서 마저도 성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 Aquinas)가 그랬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피치노(M. Ficino)와 알베르티(L.B. Alberti)가 그와 같은 사상사적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에 있어서도 흔히 명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이 전자는 플라톤 철학에 그리고 후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그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 역시 전자는 플라톤 사상에 그리고 후자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듯 서양의 지적 전통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플라톤적인 '형이상학적 사유'와 '보이는 세계'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경험과학적 사유'가 공존하고 있다.

라파엘로의 생각에 고대 그리스의 문화가 꽃피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그리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심에 이러한 인문학적 사상가들이 위치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사상가들은 고대 문화 속에서 인간과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반인들에게 제시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계몽케 하는, 그래서 삶의 지표로서 인간과 세계가 그 중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르네상스인들에게도 유효한 사항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과 세계에 대한 성찰이 수없이 존재할지라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태도는 세상이 바뀌어도 변치 않을 서로가 서로에 대해 그 존재를 인식하며 나아가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항구적인 탐구 방법(studia humanitatis, 인문학)으로 여겨졌음이 틀림없다.

이런 이유에서 인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은 인문학적 가치를 제시하는 대표적인 서구 인문주의의 상징 이미지로 손꼽는다. 그리고 우리의 「아트 앤 스터디 인문학 강좌」의 화면 중심 이미지 역시 고대 그리스 및 로마시대의 인문학자들을 한 자리에 모신 이 그림을 차용하고 있다. 이 그림 속 인물의 수보다 훨씬 많은 인문학 정신을 담고 있는 우리대학의 'e-러닝' 강좌로서 「아트 앤 스터디 인문학 강좌」가 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예술·인문학적 소양을 채워줄 영양가 높은 젖줄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2.

서평자가 여러분께 소개할 「아트 앤 스터디 인문학 강좌」는 「**현대미학: 송고와 시물라크르**」인데, 이 동영상 강의는 '예술 강좌' 편에 속해 있다.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강사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2003년에 펴낸 『현대미학 강의 : 송고와 시물라크르의 이중주』(아트북스)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전체 12강으로 구성된 이번 강의는 이전 8강으로 기획하며 펴낸 강사 자신의 저서를 보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든다.

저서 (8장)	동영상 강의 (12강)
1장 발터 벤야민 : 알레고리와 멜랑콜리	1강 송고와 시물라크르
2장 마르틴 하이데거 : 진리의 신전	2강 발터 벤야민 : 아담의 언어와 예술비평
3장 테오도르 아도르노 : 진리, 가상, 화해	3강 발터 벤야민 : 기술복제 시대와 미디어
4장 자크 데리다 : 회화 속의 진리	4강 귄터 안더스 : 팬텀과 매트릭스로서의 세계
5장 미셸 푸코 : 위계 없는 차이의 향연	5강 하이데거 : 진리의 신전
6장 질 들뢰즈 : 감각의 논리, 새로운 유물론 미학의 창조	6강 자크 데리다 : 회화 속의 진리
7장 장-프랑수아 리오타르 : 형언할 수 없는 송고함	7강 테오도르 아도르노 : 진리, 가상, 화해
8장 장 보드리야르 : 스캔들이 말하는 것	8강 장-프랑수아 리오타르 : 형언할 수 없는 송고함
	9강 미셸 푸코 : 위계 없는 차이의 향연
	10강 미셸 푸코 : 새로운 미학적 윤리학
	11강 질 들뢰즈 : 감각의 논리
	12강 장 보드리야르 : 스캔들이 말하는 것

특히,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1819)를 패러디한 제목의 글 『팬텀과 매트릭스로서의 세계(Die Welt als Phantom und Matrize)』(1956)의 저자인 귄터 안더스(Gunther Anders, 1902~1992)가 삽입·보충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귄터 안더스는 방송이라는 미디어가 낳은 새로운 세계의 존재론을 구성하려 했던 인물이다.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앞선 『현대미학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즉 일상공간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우리의 일상생활에 본질적인 영향을 주었던 아날로그 매체의 중심인 텔레비전에 대해, 귄터 안더스그가 매체로서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다룬 철학적 논의를 강사 특유의 예리한 시각에서 면밀히 살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동영상 강의의 출발이 되고 있는 『현대미학 강의 : 송고와 시물라크르의 이중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자는 "'90년대 초 소위 '포스트모던'이 유행하던 시절, 거기에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그 이유를 "이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예술적이어서 미학전공자에게는 별로 새롭게 느껴지지 않은데다가, 검증

의 차가움 없이 예술론으로나 적합할 논리들을 마구 인식론에 옮겨놓는 그 뜨거움이 부담스러웠기 때문”(p.6)이라면서, “이제야 그 뜨거운 텍스트들을 차갑게 읽는다. ‘탈근대’의 뜨거운 예술성은 수용을 위해 차가운 합리성으로 한번 걸러져야 한다.”(p.7)고 집필의도를 밝히고 있듯이, 이 동영상 강의에서도 저자가 밝힌 ‘뜨거운 예술성’을 ‘차가운 합리성’으로 다루려는 강좌 의도를 강의 흐름 전반에 걸쳐 읽을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영상 강의 제1강 ‘숭고와 시뮬라크르’에 해당하는 『현대미학 강의』의 부분은 이 책의 목차 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서문’ 내용, 즉 “하지만 정작 이 책에서 노리는 이론적 목표는 따로 있다. 현대예술은 ‘숭고’와 ‘시뮬라크르’라는, 서로 대립하며 보충하는 두 개념으로만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이 책에서 소개된 텍스트들의 독해는, 개별 사상가들의 미학 속에서 ‘숭고’ 미학과 ‘시뮬라크르’ 사상의 계기를 찾아내 드러내는 하나의 일관된 전략에 따른다. 이는 물론 현대예술의 주요한 미적 범주가 ‘숭고’에 있다는 리오타르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자 동시에 그것의 양면성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대예술에는 ‘숭고’의 무거움과, 그것을 파괴하는 시뮬라크르의 가벼움이 또한 존재한다. 숭고와 시뮬라크르는 현대인의 세계감정이 가진 야누스의 얼굴이다.”(pp.9~10)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결국, 「아트 앤 스터디 인문학 강좌」로서 「현대미학: 숭고와 시뮬라크르」와 이 동영상 강의의 모태가 된 『현대미학 강의: 숭고와 시뮬라크르의 이중주』(아트북스, 2003) 사이에는 작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변화는 없다.

서평자가 보기에 이 둘(저서, 동영상 강의) 사이에는 현대예술을 ‘현전의 철학’과 ‘해체의 전략’에서 파악하는 동시에 ‘현전의 신비주의’와 ‘해체의 회의주의’가 공존하는 현대미학의 지평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해, 표면상으로는 8명의 미학자를 다룬 저서와는 달리 동영상 강의에서는 9명을 다루며 ‘숭고의 무거움’과 ‘시뮬라크르의 가벼움’을 통해 현대미학의 개념 틀을 강사 자신만의 시각에서 담아내고 있으니, 현대예술을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는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예대인이 있다면 이 동영상을 통해 그 갈증을 해소하길 바란다.

이 승 건 (예술창작기초학부 교수·미학전공)